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 | | | | |
|----|---------|----|------------------|----|----------|
| 회차 | 임시 1-1차 | 일자 | 2022.03.20 10:30 | 장소 | 온라인 ZOOM |
|----|---------|----|------------------|----|----------|

0 성원 점검

| | | | | | |
|------|--------|--------|--------|--------|--------|
| 간호대학 | 경영경제대학 | 사범대학 | 사회과학대학 | 약학대학 | 예술대학 |
| ○ | ○ | X | ○ | X | X |
| 의과대학 | 인문대학 |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 동아리연합회 | 계 |
| ○ | ○ | ○ | ○ | X | 7 / 11 |

(※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로 별도 단위별 보고 및 보고 안전을 진행하지 않음.)

1 단위별 보고

| | |
|--------|--|
| 간호대학 | |
| 경영경제대학 | |
| 사범대학 | |
| 사회과학대학 | |
| 약학대학 | |
| 예술대학 | |
| 의과대학 | |
| 인문대학 | |
| 자연과학대학 | |
| 통일공대 | |
| 동아리연합회 | |

2 보고 안전

| | |
|---------|---|
| 중앙집행위원회 | - |
| 산하위원회 | - |
| 기타 | |

3 논의 안건

1.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관련 논의

- 중앙감사위원장 :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중앙운영위원회와 단과대운영위원회에서도 자체적인 회계가 있고 중앙감사위원회가 제3의 기구로써 이중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폐지했을 시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 이중 감사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답변과 총학생회 부칙에 속해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회칙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답변함.

<중감위원장 발언 - 추후 개선 사항>

- 지금 중감위원은 중앙문화, 동연, 녹지, 사과대 인원뿐임. 추후에는 단위에 상관없이 인원을 선출하여 그 후에 감사 단위를 중감위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할 계획.
- 5월 11월, 6월 12월 중앙감사위원회 자체 보고를 갖고 두달 정도의 소명 기간을 가진 후 전학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솔루션으로 제안함.
- 정확한 감사 가이드라인 안내. 워크숍 형태의 방식으로 감사 방식을 공유드릴 예정. 회계담당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중점으로 한 안내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 지속적으로 중앙감사위원회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시 폐지를 재논의 하는 것이 맞다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견.
- 사회과학대학: 중앙감사위원회 설립의 배경 1) 독립된 회계 감사 위해 설립 2) 19년 1학기 전학대회 때 소통 부족, 중감위원장 미선출시 대안 없음, 언론감사 및 단대별 특이사항 반영 불가 이유로 부결 3) 그 후 TF, 간담회 진행 4) 현행체제로 2학기 전학대회 의결 5) 당시 상황맥락 고려한 중감위원 선출 방식 필요 6) 선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 고려한 발전적 승계 필요
- 현재까지도 감사 시에 각 단위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2년간 운영되어왔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아 중앙감사위원회의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
- 중감위원장이 단독으로 다음 대를 뽑는 게 아니라 중감위원장은 중운위의 선발로 뽑을 계획,
- 중앙감사위원: 중앙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초대 기구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사가 미흡했지만 차차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을 보면 제출 서류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단과대별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기에 단과대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님.
- 사회과학대학: 코로나와 관계없이 매년 감사 기준이 바뀌어왔음. 작년 중앙감사위원회를 보면 1인 3개 정도의 단과대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답변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중앙감사위원회의 현실임. 단과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중감위원이 그 단과대의 감사를 진행하여야한다.
- 중앙감사위원: 단과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중앙감사위원이 그 단과대의 감사를 하는 것 대신 워크숍을 통해 각 단과대의 특성을 논의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함.
- 통일공대: 개선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기되어왔던 문제들이 추후에도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과 동시에 중앙감사위원회의 체제 개편을 위해 각 단위별 회계 담당자들끼리 서로 회계를 검토하고 중감위도 같이 참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함.
- 사회과학대학: 각 단위 회계는 각 단위 자체적인 과정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중감위가 제시하는 또 다른 과정으로 회계를 공개하는 것이 절차상 혼란이 있어왔음. 그 일례로, 환급감사 시스템 환급 방식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없이 매년 감사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혼란을 주었음. 전반적으로 학생자치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실정에서 중감위원장이 중감위원을 직접 선발한다면 높은 확률로 중감위원장 주변 사람들이 선발될 수 밖에 없다는 구조. 단과대별로 차별적인 비중으로 선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음.
- 중감위원: 단과대 내에서 자체적인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해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있는 체계와 달리 중감위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더 투명함.
- 사회과학대학: 워크숍에서 소통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과대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할텐데 그렇다면 중감위원을 최소 단과대별로 1명씩 뽑아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우려스러움. 사람들의 선의에 맞기는 것이 아니라 중감위 내에서 비위로 인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함.

- 차후 중운위 논의를 다음 정기회의에서 이어가도록 함.

4 의결 안건

1. 중앙감사위원장과 중앙감사위원의 이번 회의의 참여와 발언권을 부여한다 에 대한 의결

| 재적단위 | 찬성 | 반대 | 기권 | 결과 |
|------|----|----|----|----|
| 6 | 6 | 0 | 0 | 가결 |

5 기타 안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비상대책위원회